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의 「편의점 인간(コンビニ人間)」

-여주인공 후루쿠라(古倉)의 결핍과 성장을 중심으로-

이 지 숙*

(e-mail : aozora26@hanmail.net)

< 목 차 >

1. 들어가며
2. 후루쿠라의 결핍
3. 후루쿠라의 성장
4. <결혼이라는 제도>와 후루쿠라
5. 맺음말

키워드 : 女性作家(Female writer), コンビニ(Convenience store), 現代社会(Modern society), 芥川賞(Akudagawa Prize), 結婚という制度 (The institution of marriage)

1. 들어가며

우리가 늘 접하는 편의점이 각종 문화컨텐츠에서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오늘날, 한국과 일본에서 편의점을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이 2000년대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은 현대인의 삶을 단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으며, 문학장르의 영역으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출신 작가인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¹⁾의 저서

* 충남대학교, 강사, 일본근대문학

1) 작가 무라타 사야카(1979년~)는 타마가와대학(玉川大学) 문학부에서 예술학과 예술문화를 전공했다. 2003년 『수유(授乳)』로 제46회 군조신인문학상(群像新人文學賞)을 수상하였고, 2009년 『은색의 노래(ギンイロノウタ)』로 제31회 노마문예신인상(野間文芸新人文賞)을 수상, 제22회 미시마 유키오상(三島由紀夫賞) 후보에 올랐으며 2010년 『별이 마시는 물(星が吸う水)』로 제23회 미시마 유키오상 후보에도 올랐다. 그녀는 아쿠타카와상·군조신인문학상 등 일본의 신인문학상 5개를 휩쓸며 ‘미친·괴물·5차원’ 같은 수식

『편의점 인간(コンビニ人間)』(2016.7)은 일본 순수문학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인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을 수상하였다²⁾.

『편의점 인간』이 아쿠타가와상에 선정된 이유에는 문체나 묘사력 이외에 ‘편의점’이라는 현대적 장소를 무대로 삼은 부분이 주효에게 작용하였다. 이 작품은 2016년 출판 직후부터 일본 아마존 문학부분 1위에 올라 2018년 기준 92 만부를 돌파하며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으며 18개국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 소개되었다. 한국에서도 2016년 11월 3주 일본소설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편의점 인간』이 1위를 차지하며 편의점 문학을 상징하는 소설로 인식되어져왔다.³⁾

2017년 12월 28일 JTBC에서 진행되는 손석희 앵커의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 씨는 『편의점 인간』의 ‘주인공은 직장을 찾아 취직하거나 결혼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기준의 평범한 삶을 거부한 것이지만, 작가는 이를 이상한 것이 아닌 그저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한 것’이라고 작품을 소개하였다.⁴⁾ 사회적 이슈로도 많이 언급되는 『편의점 인간』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작가 자신이 편의점에서 일한 경험을 녹아낸 자전적 소설로 평가되고 있지만, 무라타 본인은 자신과 여주인공 후루쿠라 게이코(古倉恵子)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⁵⁾ 하지만, 무라타 사야카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작가 자

어가 따라붙었다.

등단 후 10년의 초기 무라타 문학을 결산하는 소설집 『살인출산(殺人出産)』은 그동안 그녀가 추구해 온 모든 것의 집대성이라 말할 수 있다. 『살인출산』은 2014년 제 14회 센스오브젠더상 저출산대책 특별상을 수상하고, 2015년 기노쿠니야(紀伊國屋) 서점 직원이 적극 추천하는 최고의 책 8위에 선정되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7685&cid=44546&categoryId=44546>

(검색일 2019.01.02.)

- 2) 『편의점 인간』의 문학비평은 아쿠타가와상 선고위원들의 의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쿠타가와상 선고위원인 奥泉光와 島田雅彦는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奥泉光는 「본 작품은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난 괴물적 인간을 주인공으로 취함으로써, 분명하고 알기 쉽고 또한 재미있게 작품을 그리고 있다(本作はこの人間世界を、世間の常識から外れた怪物的人物を主人公に捉えることで、鮮やかに、分かりやすく、かつ可笑しく描き出した)」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島田雅彦은 「주인공은 어쨌든 사이코패스이고, 정상적인 인간을 세뇌해가는 것이다.(主人公はいずれサイコパスになり、まともな人間を洗脳してゆくだろう)」라며 무라타의 수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文芸春秋(2016.9) 文芸春秋 「芥川賞選評」, p.291.

- 3) 일본 베스트셀러 ‘편의점 인간’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52> (검색일:2019.03.01.)

- 4)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우리는 편의점에 간다

<http://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196> (검색일:2019.03.02.)

신의 편의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여주인공 후루쿠라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녀는 실제 대학 졸업 후 18년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여성 작가로, 시상식 당일에도 “오늘 아침에도 편의점에서 일하다 왔다”며, “글이 막힐 때 머릿속을 말끔히 행굴 일터가 있다는 건 축복”이며, “내게는 성역 같은 곳인 편의점이 소설의 재료가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았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⁶⁾

그녀는 또 “편의점에 대한 애정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글쓰기를 통해 인간을 알아가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글을 써왔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편의점 일을 계속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점장과 상담하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⁷⁾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프리터족이 고착화된 일본사회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작가의 출현은 연일 매스컴에 홍보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의 연구논문은 작품이 발표된 직후인 2016년과 2017년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대표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星野光徳(2016) 「自意識の消滅について」-芥川賞・村田沙耶香『コンビニ人間』を読む, 群群系の会編.
- ② 佐藤康智(2016) 「水槽としてのコンビニ」 「コンビニ人間」論, 群像.
- ③ 永井里佳(2017) 「村田沙耶香」 「コンビニ人間」の孤独と増田みず子「シングル・セル」の孤独への一考察, 世界文学会編.
- ④ 呂衛清; 安部智子(2017) 「音」から「声」へ「村田沙耶香の『コンビニ人間』を読む」, 比較日本文化学研究/ 広島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総合人間学講座編.
- ⑤ 矢野千晶(2017) 「差の消滅: 村田沙耶香「授乳」から「コンビニ人間」まで」, 同志社女子大学日本語日本文学/同志社女子大学日本語日本文学会編 등

5) 아쿠타가와상 수상 기념 인터뷰(2016년 7월 26일)에서 작가는 자신과 주인공은 다른 캐릭터이지만, 주인공 속에서 자신이 편의점에서 얻은 ‘감각’과 세상과 단절된 ‘위화감’은 동일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016년 7월 26일 村田沙耶香さん『コンビニ人間』
<https://books.bunshun.jp/ud/book/num/9784163906188> (검색일:2019.02.13.)

6) 손병호(2016년 7월 20일). “아쿠타가와상에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 18년째 편의점서 알바하는 미혼여성 이야기”, 국민일보.

7) 임선영(2016년 7월 21일). “편의점 알바 작가 『편의점 인간』 소설로 아쿠타가와상”, 중앙일보.

을 꼽을 수 있다.

㉑星野光徳는 작가가 그리려는 세계를 인간이 자의식을 소멸시키는 ‘청결’한 세계라고 지적하였다. 성과 가족이 소멸해가는 세계를 작가가 위기감을 가지지 않다는 점을 작품의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㉒佐藤康智는 작품 속에 편의점이 ‘수조’로 표현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㉓永井里佳는 현대인이 지나는 ‘고독’에 주목하면서 1980년대의 작품인 마스다 미즈코(増田みず子)의 『싱글 세포(シングル・セル)』와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을 비교 고찰하였다. ㉔呂衛淸; 安部智子は 후루쿠라가 지나는 편의점에 대한 생각이 종교에 가까운 것이며, 편의점에서 들려오는 ‘소리(音)’ ‘목소리(声)’는 후루쿠라의 편의점이라는 장소의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논하고 있다. ㉕矢野千晶는 무라타 작품에 있어서의 여주인공과 타자와의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상식적인 가치관에서 이탈하는 무라타 작품이 지닌 의미를 고찰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㉖양아람·이행선(2017) 「2010년대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점원, 사회, 문학 -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의 『편의점 인간』과 박영란의 『편의점 가는 기분』」,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 ㉗정윤희 (2017) 「현대사회 표준화된 삶의 강제와 ‘보통 인간’ - 『엔젠 씨 하차하다』와 『편의점 인간』 비교 분석, 뷁히너와 현대문학. ㉘유재진 (2018) 村田沙耶香의 『コンビニ人間』を讀む - 「近代の自我」の終焉-, 일본언어문화 등이 한국에서 발표된 『편의점 인간』 관련 논문이다.

이중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㉖양아람, 이행선은 동시대(2010년) 동일한 배경의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작품 선정이 탁월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편의점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편의점 인간』은 ‘비정상’의 공간인 편의점과 ‘동물’이 될 권리라는 주제어를 제시했으며 『편의점 가는 기분』에서는 착취와 소외가 만연한 인간이 아닌 인류의 장소로서의 편의점을 언급하였다.

㉕장윤희는 『편의점 인간』과 『엔젠 씨 하차하다』라는 독일문학 작품을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두 작품 모두 ‘보통’에 대한 사회·문화적 강제, 그에 따른 타자의 배제와 같게 만들기를 문제로 삼고 있다. ‘보통 인간’에 대한 사회적 강제를 타자의 부정과 인간의 균질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보려 한다. 『엔젠 씨 하차하다』의 ‘연통관’원리와 『편의점 인간』의 ‘편의점’으로 사회

의 균질화 원리와 표준화된 삶의 전형으로 서사화되는 방식을 논하고 있으며, 이 두 작품이 현대사회의 획일적인 인간과 표준화된 삶과 관련하여 물음을 제시하고 있다. 편의점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기능하기를 선택한 후루쿠라와는 달리, 엔젠은 스스로 낙오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다. 엔젠은 체제로부터 자신의 노동행위를 빼냄으로써 사회 논리에 종속되지 않고 무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⑥유재진은 ‘후루쿠라 게이코’라는 주인공의 조형을 일본 근대소설이 그 출발점으로 담아내고자 했던 ‘근대적 자아’를 통해 분석하면서 ‘근대적 자아’가 『편의점 인간』에 이르러 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무라타 사야카가 여성작가라는 점에 주목하여 여성작가가 그린 후루쿠라의 삶을 중심으로 여주인공의 결핍과 성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시라하(白羽)라는 남성과의 만남과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후루쿠라의 삶과 관련지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대를 상징하는 편의점이란 공간에서 후루쿠라가 편의점 직원에서 편의점 인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여성과 현대사회의 연관성도 보다 심도있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⁸⁾

2. 후루쿠라의 결핍

소설에는 후루쿠라 게이코라는, 18년 동안 편의점에서 근무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스마일마트(スマイルマート) 히이로마치(日色町) 역전점이 오픈한 것은 후루쿠라가 대학교 1학년 때였다. 대학에 갓 들어갔을 무렵 후루쿠라는 학교행사로 노(能)공연⁹⁾을 보러 갔었다. 다양한 사람이 제복을 입고 ‘점원’이라는 ‘균일한 생물’로 만들어져가는 것에 재미를 느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후루쿠라 씨. 대단한데. 완벽해. 첫 계산인데 침착하게 잘했어요. 바로 그

8) 본 논문의 텍스트는 村田沙耶香 (2016.7) 「コンビニ人間」 文芸春秋이며, 논문에서의 한국어 인용은 무라타 사야카 지음·김석희 옮김(2016.11) 「편의점 인간」, 살림에 의한다.

9) 후루쿠라는 편의점에 오기 전에 노(能)를 관람했다. 노(能)와 편의점의 관련성에 대해 佐藤康智은 편의점이 ‘투명한 수조(透明の水槽)」로 비유되고 있으며, 다리를 통해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노무대(能舞台)와 이중적으로 묘사된다고 언급했다.

佐藤康智 (2016) 「水槽としてのコンビニ」 『コンビニ人間』論, 群像, p.179.

렇게, 그런식으로. 자, 다음 손님”

여기서 후루쿠라는 자신이 ‘세계의 부품’이 될 수 있었으며, ‘지금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였다.¹⁰⁾ ‘아침이 되면’ 후루쿠라는 점원이 되어 ‘세계의 톱니바퀴’가 될 수 있었으며 편의점에서만이 그녀가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었다.

‘부품’과 ‘톱니바퀴’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후루쿠라의 발언 속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을 주목해보고 싶다. 이 주인공은 남들과 똑같은, 오히려 남들보다 더 가정적이고 섬세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정의하는 ‘보통’과 ‘평범함’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보인다. 예를 들어 유치원 시절 공원에 죽어있는 새를 보고 ‘불쌍해서 물어준다’가 아닌 ‘아빠가 꼬치구이를 좋아하니깐 구어 먹자’와 같은 말을 스스럼없이 뱉는다. 아버지는 새 꼬치구이를 좋아했고, 여동생과 후루쿠라도 닭튀김을 좋아했기에 죽은 새를 ‘묻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었고 모두를 위해 ‘구어 먹는’ 행위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무렵 남자아이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삼을 꺼내 들고 난폭하게 날뛰는 아이한테 달려가 그 애 머리를 삼으로 후려치는’ 행동을 범하고 만다. 이 폭력에 가까운 행동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을 지니지 않았던 후루쿠라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폭력’을 선택한 것이다. 나아가 후루쿠라의 행동이 모두의 걱정거리가 된 것은 다음의 사건이었다. 여선생님이 히스테리를 일으켜 출석부로 교탁을 내리치면서 마구 소리 지를 때,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선생님에게 달려가 스커트와 팬티를 세차게 확 끌어내려’ 선생님의 행동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놀란 부모는 후루쿠라를 병원에도 데려가 보는 등 사회가 정의하는 ‘평범함’에 아이를 맞춰보려 노력한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후루쿠라는 ‘집 밖에서는 가능한 말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 흉내를 내거나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소극적인 아이로 변모해나갔다.¹¹⁾ 사회적인 관계성이나 분위기를

10) 155회 아쿠타가와상 수상 기자회견(2016.7.19.)에서 무라타 사야카는 ‘어린 시절 잘하는 것이 없는 나에게 편의점이라는 곳은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는 장소’이며 ‘상당히 미화된 장소’라고 밝히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kU1DIoCB94> (검색일 2019.01.02.)

11) 소설 속 주인공은 ‘이상한 아이’로 취급받곤 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성인이 된 주인공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택한 방식은 자신을 말살시키는 동시에 ‘보통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모습들을 학습한 뒤 그대로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사회에서 문제적으로 비칠 수 있는 본래의 자신을 되도록 불투명하게, 눈에 띄지 않게 만들면서 표준화된 인간으로 거듭난다.

한계레 21 (2017) 마음비추기 「편의점인간」, p.2.

이해하지 못하는 후루쿠라의 캐릭터는 ‘정상’과는 떨어져 있는 여성의 결핍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핍은 여성작가의 작품에서 여성의 침묵과 말없음으로 형상화¹²⁾되어 있으며 그녀 일상은 매우 평범하고 담담하게 흘러가고 있다.

여주인공 후루쿠라는 자신의 말투와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주변인들에게 철저히 맞추어가는 것으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려 한다. 그녀의 이러한 결핍은 주변인들에게 대한 과도한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거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3할은 이즈미(泉)씨, 3할은 스가와라(菅原)씨, 2할은 점장, 나머지는 반년 전에 그만둔 사사키(佐々木)씨와 1년 전까지 알바 팀장이었던 오카자키(岡崎)군처럼 과거의 다른 사람들한테서 흡수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말투에 관해서 말하자면, 가까운 사람들의 말투가 나에게 전염되어 지금은 이즈미씨와 스가와라씨의 말투를 섞은 것이 내 말투가 되었다.

후루쿠라는 어린시절에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안주할 수 있는 공간인 편의점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한다. 그녀는 이즈미씨의 옷차림이나 그녀가 소유한 잡화들을 ‘올바른 30대 여성의 표본’이라고 여기며, ‘나이에 어울리는 가방’을 들고 타인에게 ‘딱 좋은 거리감을 주는 말투’를 사용하여 ‘인간’으로 보일 것을 염원한다.

후루쿠라는 소소한 판단을 여동생에게 의지한다. 두 살 아래인 여동생은 후루쿠라와는 달리 ‘보통’ 아이였으며, 어머니에게 늘 평범한 일로 꾸중을 듣곤 했다. 후루쿠라가 고향친구들을 만날 때면 ‘지병이 있고 몸이 약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내들러두었고, 일하는 곳에서는 ‘부모님이 병약해서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두었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늘 결핍에 시달리는 후루쿠라는 자신의 행동과 말투는 편의점 동료들에게서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해야 할 말에 대해서는 여동생의 지도를 받으며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12) 내숭, 수다떨기, 뉘두리, 입 안에 고여있는 망설임, 우물거리는 애매모호한 울림 등등, 이들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이 엮어내는 언어’는 모구 직접으로 여성의 내면과 은닉되어 있는 경험을 드러내는 여성언어의 모체이다.

김성례 (1992)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전을 위하여」 『또 하나의 문화 - 야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 하나의 문화, pp.123 - 125 참조.

3. 후루쿠라의 성장

여성성장소설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질서 안에서 여성이 겪어야 하는 여러 문제적 상황들을 필연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여성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13) 후루쿠라의 성장은 시라하¹⁴⁾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백수에 월세가 밀려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항상 남 탓만 하는 무뢰한, 시라하가 나타나면서 가지런히 진열된 편의점 매대와 같던 그녀의 일상이 어질러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시라하라는 남성은 35살에 매사에 불만이 가득하고 남을 헐뜯고 다니며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 가게는 정말이지 밑바닥 인생들뿐이에요.’ ‘이런 작은 가게 점장은 루저예요.’라는 등 그는 항상 주변사람들의 탓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려는데 급급한다.

작가 자신은 시라하라는 남자의 캐릭터를 지인부터 전해들은 실제로 존재하

13)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해가는 과정이 심리적인 개별화나 사회화의 과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면, 성장소설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었을 때 여성 인물들의 성장은 우선 자신이 성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여성으로서의 자아 인식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젠더(Gender)의 식에 기초하는데, 성장소설로 분류되는 많은 작품들에서 주인공으로 설정된 남성은 미성숙한 개인으로서 외부 세계와 내면성 사이의 간극을 통찰하여 결국 성공적인 사회화와 자아의 성숙에 이르기까지 남성성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핵심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반면, 여성성장소설에서는 자의적·타의적으로 다가온 성적 정체성의 위기는 일종의 사춘기적 입사 의례의 의미를 강하게 환기시킨다

네이버 지식백과(2006.1) 여성성장소설 문학비평용어사전,국학자료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529&cid=60657&categoryId=60657> (검색일 2019.01.17.)

14) 시라하라는 남자의 인물 조형에 대해 작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시라하는 세상을 공격하려는 나쁜 성격이 있습니다. 자신도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기에 빠뜨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라하 씨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혐오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집필 시에는 사랑스러웠습니다. 심한 여성혐오 발언을 서슴치 않으면서도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는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꺼내는, 그런 나쁜 성격을 쓰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白羽さんにはもっと、世界を攻撃しようとする性格の悪さがあります。自分も、今がいいわけじゃないけれど、世の中をすごくひねて見ていたら、こういうことを言ったりし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だから白羽さんのことはあまり嫌いじゃないんです。本当に嫌な人だ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書いている時は愛おしかったというか。ひどいことを言ったり、女の人を差別しているわりに、自分にとって都合のいい時は男女平等を言い出すような、そういう性格の悪さを書くのが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滝井朝世(2016.10) 「私にとって、コンビニは世界への扉でした——村田沙耶香 (1) 作家と90分」 p.1.

는 남성 캐릭터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시라하의 등장은 후루쿠라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된다.

무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은 삭제되어갑니다. 사냥을 하지 않는 남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 현대사회니 개인주의니 하면서 무리에 소속되려 하지 않는 인간은 간섭받고 강요당하고, 최종적으로는 무리에서 추방당해요.

이 세상은 현대사회의 거죽을 쓴 조문시대(繩文時代)예요. 커다란 사냥감을 잡아오는 힘센 남자에게 여자들이 몰려들고, 마을에서 제일가는 미녀가 시집을 갑니다. 사냥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해도 힘이 약해서 도움이 안 되는 남자는 업신여김을 받죠.

『편의점 인간』은 연애·출산·결혼 세 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조차 옛말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의 남녀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시라하의 발언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규범이다. ‘사냥하지 않는 남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는 시대가 바뀌면서 취직과 결혼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시라하는 취직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조문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후루쿠라 역시 ‘마을에서 제일가는 미녀’가 아닌 ‘무리에서 소속되지 않는’ 미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취업과 결혼으로 혼자가 아닌 사회와 ‘접속’해 나가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데, 후루쿠라와 시라하는 이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후루쿠라의 첫 번째 성장은 시라하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녀의 두 번째 성장은 ‘편의점 점원’에서 ‘편의점 인간’이 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후루쿠라는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는 ‘정상적인 부품’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작용하며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 ‘편의점 인간’이라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작가의 지극한 편의점 사랑은 『편의점에게 보내는 러브레터』¹⁵⁾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작가는 편의점을 ‘당신’으로 표현하며,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나를 “인간”

15) 이 글은 2016년 2월 일본에서 출판된 「러브레터들」(작가·화가·음악가·연예인 등 26인의 연애편지 식 글 모음집)에 실려있다. 편집적일 정도로 편의점에 대한 사랑이 클로즈업된 무라카 사야카의 에세이이다.

무라타 사야카 지음·김석희 옮김(2016) 「편의점인간」, 살림, p.196.

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당신이 옆에 있음으로써 나는 비로써 “인간”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나아가 편의점과 인간은 섹스가 가능한 친밀한 공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의 소재¹⁶⁾가 되어 현대 젊은이들의 고달픈 삶의 현장을 알려주며 우리의 이웃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따스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후루쿠라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공간인 편의점을 ‘세상의 부품’ ‘세상의 정상적인 부품’ ‘세상의 수레바퀴’로 해준 장소로 안심감을 지니게 된다. 잠들기 전에는 편의점의 ‘소리’를 떠올리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이러한 편의점은 후루쿠라에게 있어서 ‘구원’과 ‘신앙’의 장소¹⁷⁾가 되어 버렸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후루쿠라가 평범한 직장인이 되기보다는 ‘편의점 점원’이라는 동물이 되기를 선택하게 된다. ‘편의점의 목소리’가 그녀의 내면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그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편의점직원과 편의점인간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서 편의점의 ‘소리’와 ‘목소리’는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상징적 언어로 변모되었다.

4. <결혼이라는 제도>와 후루쿠라

2018년 한국에서 가장 화제가 된 여성소설은 「82년생 김지영」이었다. 2016년 10월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장편소설로, 지금까지 100만부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린 최고의 베스트 소설이다. 소설은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지영이 대학을 졸업하고 홍보대행사에서 근무하다 서른 한 살에 결혼하여 딸을 낳아 키우는 과정을 따라가며 그 시기의 각종 통계와 자료를 제시해 한국 사회 여

16) 편의점 관련 일본영화

「コンビニ夢物語」(2016) 姫井由美子 : 시골 마을 편의점 이야기

편의점 관련 일본 드라마

「ニーチェ先生」(2016) : 편의점 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함에 맞서는 알바생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이 작품은 원래 편의점 알바가 자신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게 화제가 되어서 이후에 만화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작품.

편의점 관련 일본만화

「ニーチェ先生 コンビニに、さとり世代の新人が舞い降りた」(2017) : 3포 세대에서 5포 세대로 걸국은 N포 세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청춘을 위로하는 만화

17) 呂衛清; 安部智子 (2017) 「「音」から「声」へ」 『村田沙耶香の『コンビニ人間』を読む』、比較日本文化学研究 / 広島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総合人間学講座編, p.157.

성들의 보편적 삶을 보여주고 있다. 18)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 김지영의 삶을 통해 여성이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성차별과 결혼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며, 김지영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했다. 한국사회에 페미니즘소설의 열풍을 가져온 소설이다. 무라타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남성으로부터의 억압과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19)제도로의 <결혼>에 그녀가 내심 힘들어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편의점인간의 작품 속 후루쿠라는 항상 편의점에서 지내는 삶에 만족하며 불만이 없어보이지만, 그녀 역시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비혼>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사카이 준코(酒井順子)의 『네 아직 혼자입니다(負け犬の遠吠え)』(2018)에서는 결혼 안 한, 아이 없는 여성을 ‘마케이누(負け犬)’라고 부르며 혼자 사는 여성의 고백이 화제가 되었다. 저자는 혼자 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나 동정어린 시선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을 담담히 그린다. 이렇듯 현대사회에 있어 <비혼>도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선택지가 되었지만, 후루쿠라는 결혼하지 않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늘 주위를 의식하게 되었다.

“케이코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

“응, 안 했어.”

“그럼, 설마 지금도 아르바이트?”

나는 잠깐 생각했다. 이 나이에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쯤 나도 여동생의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아, 혼할 사이트에 등록하는 건 어때? 그래, 지금 혼할용 사진을 찍으면 돼. 그런 셀카보다 오늘 같은 바비큐 파티라든가 여럿이 모여 있을 때 찍은 사진이 더 호감도가 높아.”(중략) “서두르는 편이 좋은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될 테고, 솔직히 초조하죠? 아이가 더 들어서지면 늦어요.”

18) 조남주 (2018) 「82년생 김지영 코멘터리 에디션」, 민음사
82년생 김지영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04838&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19.02.12.)

19) 矢野千晶 (2017) 「差の消滅 : 村田沙耶香 「授乳」 から 「コンビニ人間」 まで」、同志社女子大学日本語日本文学 / 同志社女子大学日本語日本文学会編, p. 122.

후루쿠라의 주변 사람들은 취직이나 결혼이라는 형태로 사회와 접속해가고, 취직도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후루쿠라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남자를 사귀 경험도 성경험도 없는 그녀였지만, ‘성욕을 특별히 의식한 적’이 없는 ‘성에 무관심한’ 미혼여성이었다. 그런 그녀가 주변 지인에게는 ‘연애 경험은 있고 육체관계를 가진 적도 있는 분위기’로 대답하면서, 보통의 삶을 연출해내려고 한다. 이렇게 미혼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후루쿠라에게 주변의 친구들은 결혼하지 않는 미혼여성의 삶을 ‘위험’하다고 말해준다. 결혼한 사람들은 ‘정상세계’에서 ‘정상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후루쿠라는 ‘나쁜 생물’ ‘이물질’이 되어 ‘정상세계’에서 ‘삭제’가 되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시라하는 결혼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인 ‘혼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면 후루쿠라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자신의 의지를 직접 피력을 하지 못한 채 결혼하기 쉬운 상대인 시라하를 선택하게 된다. 연인이 아닌 이들의 동거는 위장에 불과한 것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기뻐하며 “잘 됐다! 난 걱정했어”라며 두 사람을 축복해주었다. 후루쿠라는 “다들 내가 비로소 진정한 ‘한패’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나는 모두에게 ‘저쪽’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 후 후루쿠라가 먼저 ‘결혼만을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를 제안하게 된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면 더 이상 ‘왜 결혼하지 않아?’ ‘왜 아르바이트를 해’라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남자와 ‘세상’의 눈을 의식해 남자와 함께 살기를 선택한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식비’만 내면 된다는 후루쿠라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후루쿠라의 삶 속에 시라하가 들어와서 먹고 자니, 후루쿠라의 표현을 빌면 정말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러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시라하의 제수가 찾아와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두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후루쿠라는 시라하를 부양하기 위해서 후루쿠라는 제대로 된 정규 직장에 취직하기로 결심한다. 부양을 요구하는 남자와 부양을 책임져야하는 여자라는 바뀐 성역할을 계기로 이들의 사이는 벌어지게 된다. 남자와의 동거를 통해 ‘정상인간’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낯선 편의점에 이끌려 버린다. 자신은 편의점에서 일을 해야만 존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시라하라는 인간 따위 그

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깨닫고, 시라하에게 이별을 고한다. 즉, 후루쿠라는 보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정된 직장과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기보다는 ‘편의점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5. 맺음말

무라타 작품의 대부분 여성의 1인칭 형식을 취하고 있다. 2016년까지 단행본으로 발행된 작품 중에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은 한 작품도 없었다.²⁰⁾ 무라타 작품의 주인공들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현실적 괴로움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작가가 여주인공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과 심정을 작품 속에 그대로 담는 1인칭의 형식은 작가 자신의 생애와 관계되는 언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²¹⁾

20) 矢野千晶 (2017), 앞의 논문, p. 122.

21) 일본근대여성문학에 있어서 많은 여성작가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1인칭으로 이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与謝野晶子の 「そぞろごと」의 두 두절이 주목된다.

山の動く日来 (きた) る。
かく云えども人われを信ぜじ。
山は姑 (しばら) く眠りしのみ。
その昔に於て
山は皆火に燃えて動きしものを。
されど、そは信ぜずともよし。
人よ、ああ、唯これを信ぜよ。
すべて眠りし女 (おなご) 今ぞ目覚めて動くなる。
一人称 (いちにんしょう) にてのみ物書かばや。
われは女 (おなご) ぞ。
一人称にてのみ物書かばや。
われは、われは。

(산이 움직이는 날이 온다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네
산은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그 옛날
산은 모두 불길에
휩싸이며 움직이고 있었네
그래, 하지만 그걸 결코 믿지 않아도 좋아

또한, 후루쿠라는 자아 발견과 정체성의 모색은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문학의 중요한 테마이다. 대부분의 여성 성장 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은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법을 시도하나 현실에서는 여성을 둘러싼 가부장적제도와 모순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작가인 무라타의 작품에는 기존 사회를 지배하는 남성스러움(男らしさ)과 여성스러움(女らしさ)의 젠더적 고정관념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또한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남성 우위의 사회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의문점을 지닌다. 22) 작품 『편의점 인간』에서도 생활력을 잃은 백수 시라하와 자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가는 후루쿠라를 그려 ‘남자는 생계부양자’ ‘여자는 생계보조자’라는 젠더의 틀을 역전시킨다. 결혼을 하면 남자는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기존의 젠더의 틀을 시라하는 거부하며 ‘후루쿠라 씨만 정규직에 취직하면 나는 더 이상 그런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되고 후루쿠라 씨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자신의 백수 생활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또한 무라타 사야카는 ‘세상의 상식으로 벗어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후루쿠라의 캐릭터를 통해 현대사회에 고심하는 여성의 내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18년간 편의점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온 후루쿠라에게 있어서 편의점은 그녀가 현실세계에 있으면서도 현실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며, <결혼>이라는 사회적 규범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후루쿠라는 확고한 개체적 자아를 확립한 여성은 아니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의 회복을 시도해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시라하라는 남자의 이기심에 <결혼>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되면서 그녀는 편의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편의점 일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게 된다.

사람들이여, 아아 이것만은 믿어주오
완전히 잠들어 있는 모든 여인들이 오늘 이렇게 눈을 떠 움직이고 있음을
일인칭으로 글을 쓰고 싶다
일인칭으로 글을 쓰고 싶다)

여성이 자신의 현실을 1인칭으로 이야기하려는 与謝野晶子の 「そぞろごと」는 당시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표현의 방법을 부여하였다.

김은희·안혜련·이지숙·최은정·안노 마사히데(2004) 『신여성을 만나다 - 근대 초기 한 중 일 여성소설 읽기』, 새미, p.76.

22) 矢野千晶 (2017), 앞의 논문, p.136.

본고에서는 여성작가 무라타 사야카가 그려낸 여주인공 후루쿠라가 작가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루쿠라의 결핍과 성장을 통해 여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현대사회의 현실을 알 수 있었으며, 편의점 점원에서 편의점 인간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후루쿠라가 자신을 둘러싼 열악한 환경을 자각하고는 있지만, 그녀 자신의 슬픔, 괴로움, 고충 등이 적나라하게 고백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작가 자신이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감정으로 소설을 쓰고”있었으며 “사람들의 재미있는 점과 엉뚱한 부분을 표현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닌 추악한 감정이나 역겨움도 어딘가 귀엽고 사랑스럽”²³⁾게 전환되기 때문에 후루쿠라의 어두운 현실 상황도 슬프지 않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다.

【参考文献】

<텍스트>

무라타 사야카 지음· 김석희 옮김 (2016.11) 「편의점인간」, 살림.

村田沙耶香 (2016.7) 「コンビニ人間」, 文芸春秋.

김성례 (1992)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전을 위하여」 『또 하나의 문화 -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 하나의 문화, pp.123 - 125 참조.

김은희· 안혜련· 이지숙 최은정· 안노 마사히데(2004) 『신여성을 만나다 - 근대 초기 한중 일 여성소설 읽기』 -, 새미, p.76.

양아람, 이행선 (2017) 「2010년대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점원, 사회, 문학 -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의 『편의점 인간』과 박영란의 『편의점 가는 기분』」, 한국학연구, p.226. (DOI:http://dx.doi.org/10.17790/kors.2017..63.195)

유재진 (2018) 村田沙耶香의 『コンビニ人間』을 읽기 - 「近代的自我」의 終焉 -, 일본언어문화, p.243. (DOI:http://dx.doi.org/10.17314/jjlc.2018..43.013)

정윤희(2017) 「현대사회 표준화된 삶의 강제와 ‘보통 인간’ - 『엔젠 씨 하차하다』와 『편의점 인간』 비교 분석, 뷁히너와 현대문학, p.243.

(DOI:http://dx.doi.org/10.17314/jjlc.2018..43.013)

佐藤康智 (2016) 「水槽としてのコンビニ」 『コンビニ人間』論, 群像, p.179.

23) 교보문고 작가와의 만남 (2017.2) 『편의점 인간』 무라타 사야카, “인간이 가진 추악한 감정이나 역겨움도 어딘가 귀엽고 사랑스럽다”

http://news.kyobobook.co.kr/people/writerView.ink?sntn_id=12950 (검색일: 2019.01.12.)

- 永井里佳 (2017) 「村田沙耶香コンビニ人間」の孤独と増田みず子「シングル・セルの孤独への一考察」, 世界文学会編, p.21.
- 星野光徳 (2016) 「自意識の消滅について」 芥川賞・村田沙耶香 『コンビニ人間』を読む, 群群系の会編, pp.164-165.
- 矢野千晶 (2017) 「差の消滅 : 村田沙耶香「授乳」から「コンビニ人間」まで」、同志社女子大学日本語日本文学 同志社女子大学日本語日本文学会編, p.122.
(DOI:<http://dx.doi.org/10.15020/00001554>)
- 呂衛清・安部智子(2017) 「「音」から「声」へ」 『村田沙耶香の『コンビニ人間』を読む』、比較日本文化学研究 広島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総合人間学講座編, p.157.

논문 투고 일자 : 2019. 02. 10.
논문 심사 일자 : 2019. 05.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05. 07.

<要旨>

村田沙耶香の「コンビニ人間」
-古倉の欠如と成長を中心として -

李智淑

村田沙耶香の「コンビニ人間」は2016年、第155回芥川竜之介賞を受賞した。著者の村田沙耶香(37)氏は、作家業と並行して、コンビニの店員を続け、そのバイト体験を元にした小説を初めて書いた。主人公の古倉恵子は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のアルバイト歴が18年。子供の頃から社会の常識になじめず、これまで男性と交流したこともない36歳の未婚女性である。そんな彼女もマニュアルに沿ってコンビニで働いているときだけは、「世界の正常な部品」になったと、と安心することができるのだ。そこに婚活目的の男性が新人バイトとして入ってきて、物語は展開していく。

本稿では古倉に論点を合わせ、彼女の生き方の展開を<欠如>と<成長>の側面から綴ってみた。その上、<結婚という制度>の見方から古倉の結婚に関する考え方などを論じた。女性作家の作品には女性ならではの<生き方>がよく現れている。未だに女性の<生き方>として<正規職の継続>と<結婚>など、<普通>の女性の生き方に対し、作家自身の苦悩が反映された作品と言えるだろう。

Murata Sayaka's "Convenience Store Woman"
- Furikuras <Lack> and <Growth> -

Lee, Ji-Suk

Murata Sayaka's "Convenience Store Woman" was awarded the 155th Akutagawa Ryunosuke Prize in 2016. The author, Sayaka Murata, 37, wrote for the first time a novel based on her part-time experience while working at a convenience store in parallel with her writing career. The main character, Keiko Furikura, has been working part-time at a convenience store for 18 years and is a 36-year-old unmarried woman who has never been familiar with men since childhood. Only when she works at a convenience store according to the manual, she feels relieved that it has become a "normal part of everyday life". The story unfolds as a man who aims to get married enters as a new part-timer at the convenience store.

In this article, I focus on Furikura and tried to discuss the expansion of her lifestyle from the aspects of <lack> and <growth>. Furthermore, I discussed the views on marriage in Furikur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rriage as institution>. Women's unique way of living is often seen in the works of women writers. As the way women live their lives, such as women continue to work and marriage, it is a work that reflects the agony of the writer's own work.